

단체장 줄줄이 예비후보 등록...광주·전남 행정 '대행 체제'

직무 놓고 전면전 vs 현직 유지 투트랙...대응 방식 달라 권한대행 확산 행정 공백 우려...통합 변수에 판세 영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지방 행정이 빠르게 선거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직무를 내려놓고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드는가 하면, 일부는 직을 유지한 채 공개 후보를 최소화하며 선거를 준비하는 등 대응 방식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면서 시·도정과 시·군·구정이 속속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

할 예정으로, 등록 이후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이끌게 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앞서 지난 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현재 전남도정은 황기연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단체장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18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를 공식화하며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와 민·군 공항 이전 합의 등 민선 8기 성과를 앞세워 재선 행보에 돌입했다. 임택 동구청장 역시 같은 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직무를 내려놓은 채 도시재생과 골목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지난 16일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전에 가세했고,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전면에 내세워 남구의 위상 재편 구상을 강조했다. 반면 김이강 서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 없이 직무를 유지한 채 재선 도전에 나서기로 하면서, 행정 연속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을 택했다. 전남 역시 단체장들의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 전환이 이어지고 있

다. 여수는 정기명 시장이 지난 5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정현구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섬 박람회 준비와 민생 대응을 병행하고 있으며, 광양도 정인화 시장의 17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김정완 부시장이 시정을 이어받아 공직기강 유지와 현안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나주 역시 윤병태 시장이 19일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으로, 이후 강상구 부시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맡게 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단체장들의 잇따른 예비후보 등록으로 행정 공백 우려와 함께

공정성 확보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 여부와 현안 추진력 유지가 이번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도시의 경쟁력은 시민의 삶의 질에서 나온다"며 "원도심 활성화와 도심 재개발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머무르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정책도 전면에 내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 광양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청년특구 조성을 통해 일자리와 창업, 정착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광양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산업을 강하게, 삶을 따뜻하게 만들겠다"며 "시민과 함께 광양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oback@gwangnam.co.kr

김영록 "전남 서남권, 에너지·반도체·해양 허브로 육성"

7대 공약 발표...청사진 제시 RE100 클러스터·인공지능 등 "대한민국 미래거점 만들 터"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전남 서부권을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해양관광이 결합한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RE100 산업지대 조성부터 AI·반도체, 교통망, 농생명, 관광, 공공기관 이전까지 아우르는 7대 발전공약을 앞세워 서부권 대개조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1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서부권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에너지·반도체·해양 허브로 만들겠다"며 서부권 발전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RE100 기반의 에너지·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다. 김 예비후보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연결되는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서부권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오픈 AI,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전력 다소비형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 양산체계까지 갖추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AI·데이터 산업 집적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예비후보는 오픈AI 데이터센터와 국가AI컴퓨팅센터 등을 발판으로 서부권을 '대한민국 AI·데이터 산업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조선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AX, 즉 인공지능 전환도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1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서부권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에너지·반도체·해양 허브로 만들겠다"며 서부권 발전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병행해 산업 체질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도 내놨다. 광주 송정역과 무안국제공항을 잇는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공항·항만·산단을 하나로 연결해 서부권을 '원스톱 통합교통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목포 원도심과 목포역, 무안 남악·오룡 신도심을 연결하는 전남형 트램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서부권 육성 전략도 담겼다. 김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키워 2030년 수출 7억달러를 달성하고, 서부권을 K-푸드·농생명산업의 생산·수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다도해와 남도의 맛 등 지역 자원을 활

용해 해양치유·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와 문화 분야 공약도 포함됐다. 국립 의과대학의 조속한 개교를 추진하고 동·서부권 부속 대학병원을 함께 건립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대문화유산이 밀집한 서부권을 문화와 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공공기관 이전 구상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가유선청을 서부권으로 옮기고, 목포·무안권에 농협중앙회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서부권은 에너지와 첨단 반도체 중심 권역으로 성장할 조건을 갖춘 데다 산업용지 400만평과 배후도시 700만평 등 1100만평 규모의 미래산업·정주 복합공간 조성이 가능한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체계적인 빅테크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대한민국 대표 미래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과 바람이 곧 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전남 서부권이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핵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6·3 지방선거 브리핑

김태균 의장, 광양시장 예비후보 등록 제철소·광양항·원도심 '3대 대전환 전략' 제시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사진)이 19일 광양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들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양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광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광양의 미래 전략으로 광양제철소, 광양항, 원도심을 축으로 한 '3대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철강산업과 관련해서는 광양제철소 독립법인 추진과 분사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투자와 고용, 세수 확대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광양항과 관련해서는 물동량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만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도심 활성화와 도심 재생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도시의 경쟁력은 시민의 삶의 질에서 나온다"며 "원도심 활성화와 도심 재개발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머무르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정책도 전면에 내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 광양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청년특구 조성을 통해 일자리와 창업, 정착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광양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산업을 강하게, 삶을 따뜻하게 만들겠다"며 "시민과 함께 광양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강성휘 "서남권 공공의료 우선해야"

강기정 광주시장 '국립의대 동부권 설립' 주장 반박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사진)가 강기정 광주시장의 '전남 국립의대 동부권 설립'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강성휘 예비후보는 19일 "전남 의과대학 설립은 특정 지역 선택 문제라 아니라 도민 생명권과 직결된 국가의료정책으로 공공성과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기정 시장의 동부권 산업 수요를 근거로 한 의대 설립 필요성 주장에 대해 "산업재해가 많다고 해서 의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산업재해 대응의 핵심은 외상센터와 화상센터, 중증응급의료 시스템 등 즉각 대응형 치료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전철적인 의료 취약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가야 공공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포에는 목포대학교 송림캠퍼스 부지와 옥양지구 16만㎡의 대·대학병원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다"며 "의대와 대학병원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준비된 지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은 산업에 맞게, 공공의료는 필요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며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은 서남권인 목포에 들어서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2123@

광주 기초의원 26명 본선형 민주당, 1차 경선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9개 기초의원 선거구 당내 경선을 거쳐 26명의 본선 진출자 명단을 19일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남·북·광산구 9개 기초의원 선거구를 대상으로 관리당원 100% ARS 투표방식을 통해 선거구별 출전선수를 최종 결정했다. 서구 다 선거구만 2명을 선출했고, 나머지 8곳은 각각 3명씩이다.

선거구별 본선 진출 후보자(가나다순)는 △서구 가 김수영·이기성·이현남 △서구 다 김명선·백준호 △서구 라 김유안·박영숙·오지은 △남구 가 김경목·김춘구·조미애 후보 등이다.

경쟁이 치열했던 △북구 가는 고영인·고점례·신원익 △북구 나·는 김재덕·박정하·신정훈 △북구 마는 김혜은·배미선·황예원 △북구 바는 윤은경·정재성·한양임 후보로 확정됐다. △광산 다는 강한솔·조영인·최윤종 후보가 나란히 본선형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주철현 "2차 공공기관 이전, 권역별 분산 유치"

동·서부권·광주권·해양·에너지·R&D 기능별 특화 구상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사진)이 이재명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연계한 권역별 유치 전략을 제시하며 지역 균형성장 구상을 내놨다. 통합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기능별 분산 배치를 통해 광주·전남 전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주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국가 정책"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권역별 전략적 유치를 통해 특정 지역 쏠림 없이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약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성을 전수 조사 중이며, 2027년을 기점으로 단계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1

차 이전에서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53개 기관, 약 4만1000명이 지방으로 이동하며 지역 산업 기반 형성에 일정한 성과를 남겼다.

주 의원은 이 같은 흐름을 전남광주 통합 전략과 결합해 동부권·서부권·광주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부권은 해양·환경·산업기술 중심의 해양경제 거점으로 설정했다. 수협중앙회를 여수·순천·고흥에 각각 유치하는 구상이다. 해양·환경·산업 기술이 결합된 동부권 특화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서부권은 데이터·공항·어촌·에너지 기능을 축으로 한 산업벨트를 제시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해남·장성, 한국



공항공사는 무안, 한 국어촌어항공단은 완도·진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영광에 배치해 에너지와 해양관광, 데이터 산업이 결합된 복합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광주권은 연구개발과 농업·에너지 기능을 집중한 혁신벨트로 설정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광주 광산구·합평, 농협중앙회는 곡성·화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나주, 한국사회회는 담양에 각각 유치해 첨단 연구개발과 농생명 산업이 결합된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초광역 경제공동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전남·광주 대도약의 결정적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민주당 구례군수 경선 앞두고 공천 갈등 격화 출마예정자 5명 "김순호 배제·권리당원 전수조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구례군수 경선을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이 특정 후보의 공천 배제와 권리당원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박인환·장길선·문정현·홍분만·신동수 등 구례군수 출마예정자 5명은 최근 구례군의회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경선을 위해 도덕적 결함이 있는 김순호 출마예정자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당 공천 4대 원칙 가운데 '도덕적 결함 후보 배제'를 근거로 제시하며 김순호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를 공식 요구했다. 이들 출마후보자 5명은 '부정부패 없는 클린 공천' 원칙에 따라 권리당원 규모와 모집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